

특별기획



익산시 지방도에 코스모스 활짝

익산에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가 만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6월부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전시관을 잇는 722번 지방도 8km와 황등~하갈교차로 5.2km 총 13.2km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원대병원-아주대의료원 MOU체결

원광대학교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이 인프라 공동 활용 및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의료원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윤권하 원광대병원원장,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 및 관계자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병원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병원은 상호 인프라 활용, 전문 인력 상호 교류, 연구 개발 및 기술 협력을 비롯하여 양 기관의 공동 목적,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정했다.

또한 상호 업무 협력으로 첨단기술 개발과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와 연구개발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고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의 공동 개최를 통한 정보 교류 및 원천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동군산으로 도심발전축 이동

군산시 균형발전 노력 결실... 군산역·전북대병원·롯데아울렛 등 유치

최근 군산지역발전을 선도할 굵직한 사업들이 결정되면서 시 발전축이 급격하게 동군산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민의 숙원사업인 군산전북대병원 신축부지가 사정등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2022년 1월이면 정식개원이 될 예정이다.

또 군산지역의 상권변화를 가져올 롯데아울렛도 전북도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군산시의 건축허가를 앞두고 있다.

특히 롯데아울렛 건축허가 승인될 경우 동군산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페이퍼코리아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 경제지형의 대폭변화가 필연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동군산의 도심발전은 군산시가 1980년대부터 서군산(공단, 나운동) 지역 위주의 개발로 상대적으로 동군산지역이 낙후되는 불균형적 도시개발을 바로잡기 위해 2000년대부터 동군산발전계획을 진행시킨 결과이다.

시의 첫 번째 동군산발전 사업은 군산역 이전을 동군산쪽으로 유도하고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페이퍼코리아 이전, 군산전북대병원 설립 추진에 집중하면서 급격하게 동군산쪽으로 도심발전축이 이동했다.

미장동, 조촌동 등 동군산지역에 미장이파크 1차와 2차, 제일풍경채, 대원 컨타빌, 서희스타힐스, 프로지오 등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을 마쳤거나 현재 분양 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동군산지역 개발에 중점 노력한 결과"라며 "이제 동군산과 서군산지역을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군산발전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개관

이리농악·이리향제줄풍류 보존 전승 위한 교육·체험·공연 등 중심공간 기대

익산시는 22일 오후 4시경 무형문화유산인 이리농악과 이리향제줄풍류의 보존 전승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이춘식·조배숙 국회의원과 전국무형문화재보존회, 지역 문화에 숭단체 등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익산시 모현동 소재 김동문 배드민턴장 인근에 건립된 통합전수교육관은 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4년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8월 완공했다. 연면적 3,919㎡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건축양식으로 건립됐다.

전수공간으로 연습실, 강의실, 체험실 등과 공용공간으로 세미나실 등과 실내공연장, 다목적 소공연장, 야외 풍물마당 등으로 구성되었고 외부 공간에는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했다.

통합전수교육관에 입주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이리농악보존회 및 국가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는 그동안 열악한 전수환경으로 무형문화재의 공연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통합전수교육관 건립을 계기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유산을 교육과 공연을 통해 널리 알리고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 기법을 전승 보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으로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전승 환경이 개선되고, 이곳이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지역의 전통무형유산을 즐길 수 있는 익산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무형문화재인 이리농악과 이리향제줄풍류의 열악한 전수환경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통합전수교육관 건립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유산의 교육, 체험, 공연 등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군산시,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 특별교육

군산시가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지방규제개혁에 발 맞춰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해 적극적인 행정 행태를 유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생산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강의는 2015년 규제개혁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여수시 박형욱 광림동장과 지방행정혁신 전문가로 불리는 광주

복구청 모기남 규제개혁팀장을 초청하여 1000여원대의 외자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방법과 기업·주민·민간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성공요인 등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자체가 앞장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창호 군산시 기획예산과장은 "규제개혁이 현안업무에 바쁜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업무임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가 규제개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7월 시 전반에 걸쳐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수립했으며, 연말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유아들이 숲의 유익함 느끼게

익산시, 유아 숲 체험원 준공... 이달 말부터 무료 개방

익산시가 서동공원 인근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을 9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는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유아 숲체험원 조성을 완료하고 이달 말부터 7세 이하의 유아와 지역 내 유아 교육기관에 무료로 개방한다.

유아 숲 체험원에는 실로폰놀이, 트리데크, 숲 소파 등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어린이들은 숲에서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을 하게 된다. 유아 숲 지도사가 계절별로 숲속 생태관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산림의 유익함을 체험하게 해 유아기 자녀들의 정서와 신체 발달에 도움을 주고, 숲에서 하는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유아의 부모나 관내 유아 교육기관 등이 예약 [익산시청 산림공원과(859-5468)]을 하면 지역 내 유아 누구나 오전 10시~오후5시까지 숲을 이용할 수 있다. 필요시 익산시청 산림공원과(859-5468)에 문의하면 유아 숲 지도사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대야면, 재능기부자 상시모집

군산시 대야면(면장 김석근)은 농림부에서 공모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재능기부 희망자를 상시 모집한다.

재능기부란 봉사자가 자신의 재능을 대가 없이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분야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체험분야인 쌀 관련한 음식 만들기, 공예, 그리기 및 만들기 등 문화·예술 분야이다.

재능기부를 통해 대야면 소재 초·중·고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 체험을 통한 재능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대야면의 소중한 자산을 근대 건축물(주조장)과 300년 전통의 5일장 및 주말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재능 나눔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우편, 유선, 방문 등의 방법으로 대야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문정근 기자

군산시, 미국 농수산물 수입유통 4개사와 업무협약

군산시 농수산물의 미주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LA 한인축제 엑스포에 참가 중인 군산시가 22일 코트라 LA 무역관에서 미국 한인 농수산물 수입 유통사와 군산시 농수산물 미주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는 미국에서 30년 이상 농수산물 수입유통을 하고 있는 한인 수입유통회사 'ACE Supply', 'NEW OCEAN', 'W&F', 'YS USA LLC' 4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군산시 농수산물의 미주시장 진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Advertisement for 'Gunsan Time Travel Festival' (군산시간여행 축제) held at the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and Wollmyeong-dong. The festival runs from September 30 (Friday) to October 2 (Sunday). The ad features a vintage-style illustration of a man and a woman in 1920s attire standing in front of a historical building. Text includes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 '근대, 추억을 만나다', and contact information: 'T. 063) 454-3343 festival.gunsan.go.kr'.